

2020년도 4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 심사총평

이번 분기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공모사업에는 총 5개 언어권에서 5건의 사업(영어 1건, 스페인어 1건, 중국어 1건, 일본어 1건, 베트남어 1건)이 신청되었으며, 행사의 성격은 문학행사 3건, 문예지 1건, 기타 1건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였다.

번역원 실무진들과 강보경, 최재봉, 김수이 등 3인의 심사위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심사 회의를 줌Zoom으로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시도한 심사임에도, 약간의 우려와 달리 대면 회의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밀도 있는 논의로 회의의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신청된 5건의 사업 모두에 대한 평가의 시각과 수정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거의 같아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다음 4건에 대해서는 신청 주체의 의지와 문학사업 관련 이력, 행사 내용의 충실성, 기획의 창의성, 신청한 언어권의 외국인 대중에 대한 한국문학의 파급력, 편성된 예산의 규모와 신청 주체의 자부담 의사 및 각 항목의 적절성 등을 두루 살펴 만장일치로 지원을 결정하였다.

- [영어/미국] 정보라 작가-번역가 온라인 대담; 흥 연합(Heung Coalition), UC 버클리 한국학연구소
- [대만] 한국문학 홍보영상 제작(2편); 내용력유한공사
- [일본어] K-BOOK 독서가이드 『책책(ちえっく CHECK)』 제7호 제작; K-BOOK 진흥회
- [베트남어] 구병모『위저드 베이커리』 독후감대회 시상식 개최; 홈북스 출판사(Homebooks)

반면, 스페인어권인 멕시코에서 신청된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층의 문학 향유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멕시코 문화권에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문학과 음악이 함께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판단되나, 행사의 성격이 문학보다는 음악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에 적절치 못한 항목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학작품을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스페인어/멕시코] 멕시코 국립 도서관 온라인 한국문학 콘서트; 신현준(피아니스트)

신청자가 보낸 수정 및 보완내용을 검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1) 신청자의 지원신청 항목 중 오케스트라 사례비는 문학행사 진행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항목 및 총 지원금을 하향 조정한다. 2)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사례비(전액)와 영상촬영비(50%)는 행사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며, 계획안대로 저명인사가 한국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로 치러졌는지 점검하여 후불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덧붙여, 심사위원들은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해외교류 공모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인상을 받는다.

2) 향후 공모사업을 장기와 단기, 정기와 비정기(상시) 등으로 나누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3) 한국문학 사업을 오래 진행해 온 주체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해당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4) 비대면 조건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행사는 지원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향유에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기에 한국문학을 세계에 더 효과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판단된다. 번역원 측에서도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선도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2020. 10. 15.

심사위원장 _____ 김 수 이 _____(인)